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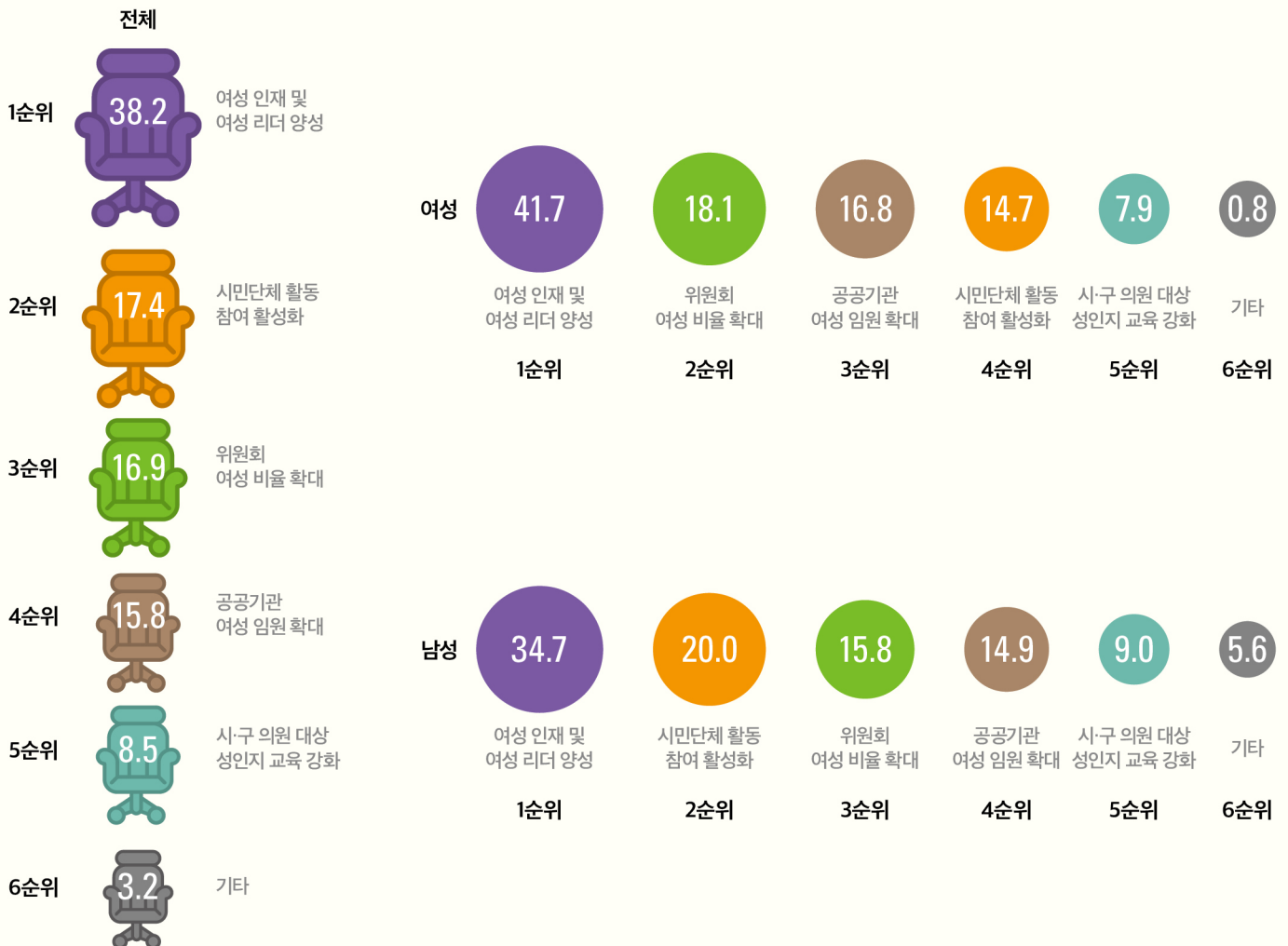
대전시민이 본 의사결정 테이블 "성평등 대전, 무엇이 필요한가?"

2026년 6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여성의 정치대표성 현황을 다룬 2월호에 이어, 이번 3월호에서는 의사결정 분야에 대한 시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5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실시한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중 의사결정 영역의 양성평등 수준, 지역사회 중요한 결정 과정 참여 경험 등 관련 주요 내용을 발췌·정리했다.

38.2%, “성별 대표성 향상을 위해 여성 인재·리더 양성 필요해”

의사결정의 성별 대표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보면, ‘여성 인재 및 여성 리더 양성’이 38.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다음 ‘시민단체 활동 참여 활성화’(17.4%), ‘위원회 여성 비율 확대’(16.9%) 순이다. 여성은 ‘여성 인재·리더 양성’이 41.7%로 남성(34.7%)보다 높고, ‘위원회 여성 비율 확대’(18.1%)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확대’(16.8%) 역시 남성보다 높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정책은 ‘시민단체 활동 참여 활성화’(20.0%)와 ‘시·구 의원 대상 성인지 교육 강화’(9.0%)였다.

의사결정의 성별 대표성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1순위)



· 전체 n=1,500, 여성 n=746, 남성 n=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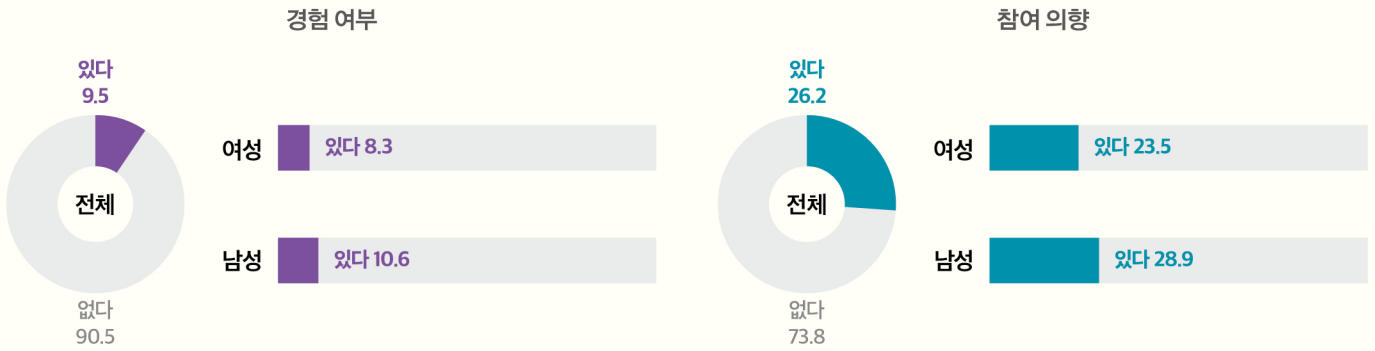
· 출처: 류유선, 오윤희, 김은하(2025),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대전연구원

지역 내 의사결정 참여 경험, 남성 10.6%·여성 8.3%

2025년 대전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지역 내 중요한 결정(위원회 참여 등)에 대해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5%였고, '향후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6.2%였다. 실제 경험보다 참여 의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참여 경험의 경우 남성(10.6%)이 여성(8.3%)보다 2.3%p 높고, 참여 의향 또한 남성(28.9%)이 여성(2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 내 중요한 결정(위원회 참여 등) 참여 경험 및 참여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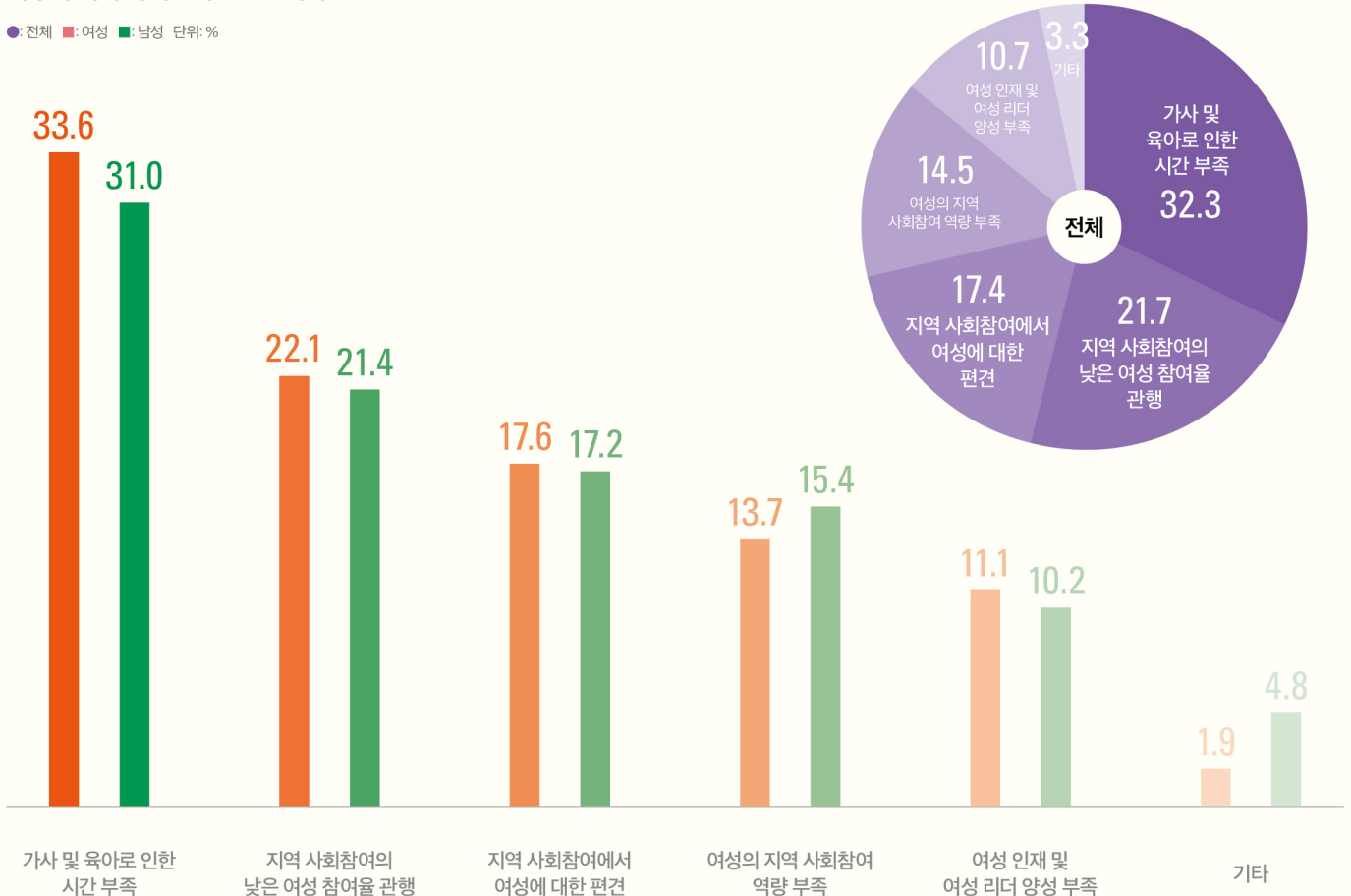


여성 사회참여 감소 요인으로 여성은 '가사 및 육아 부담', 남성은 '역량 부족' 꼽아

여성의 지역 사회참여를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가사 및 육아로 인한 시간 부족'이 3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낮은 여성 참여율 관행'(21.7%), '여성에 대한 편견'(17.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가사 및 육아로 인한 시간 부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은 비율이 33.6%로 남성(31.0%)보다 높았으며, '낮은 여성 참여율 관행'(22.1%)과 '여성 리더 양성 부족'(11.1%) 영역 역시 남성보다 높다. 반면 남성은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 부족'(15.4%) 항목에서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성의 지역 사회참여를 감소시키는 요인

● 전체 ■ 여성 ■ 남성 단위: %



·전체 n=1,500, 여성 n=746, 남성 n=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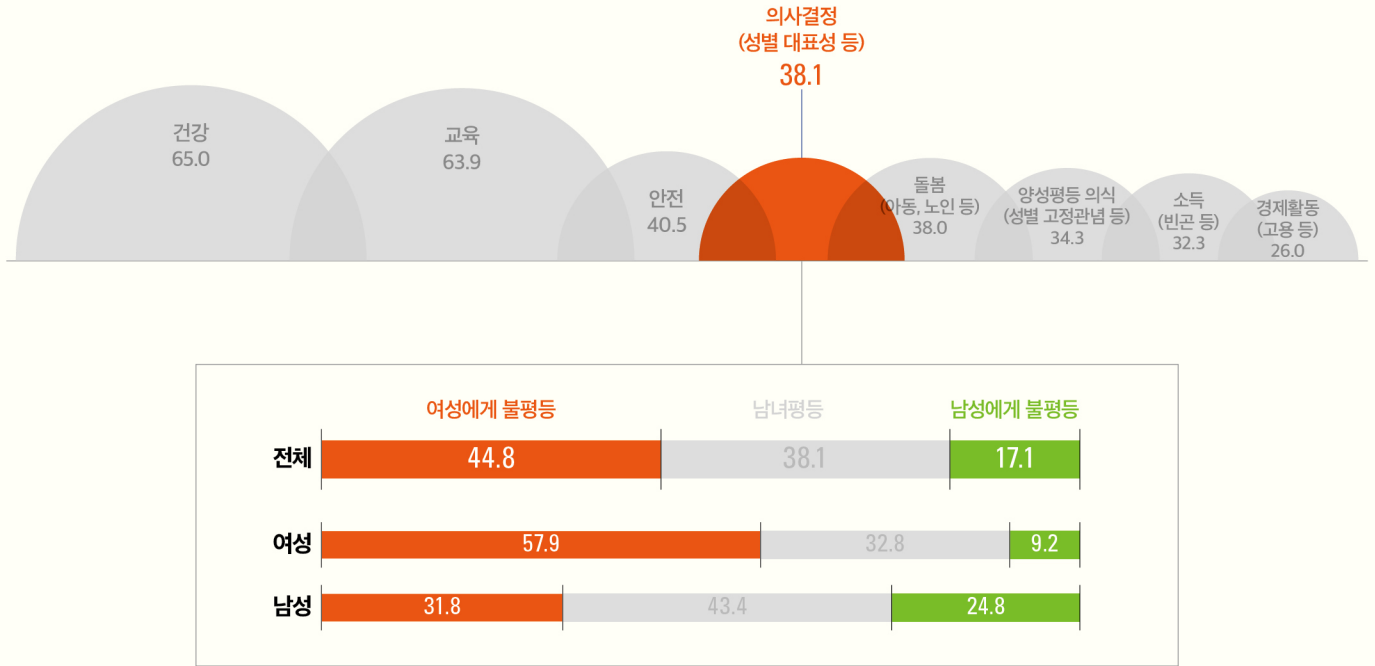
·출처: 류유선, 오윤희, 김은하(2025),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대전연구원

의사결정 분야,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비율 44.8%

2025년 실시한 대전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중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다. 8개 영역 가운데 '남녀가 평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야는 건강(65.0%)이었으며, 의사결정 영역(38.1%)은 네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에게 불평등' 응답이 44.8%로 '남성에게 불평등' 응답(17.1%)보다 높다. 성별로는 남성은 '남녀평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4%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여성에게 불평등' 응답 비율(57.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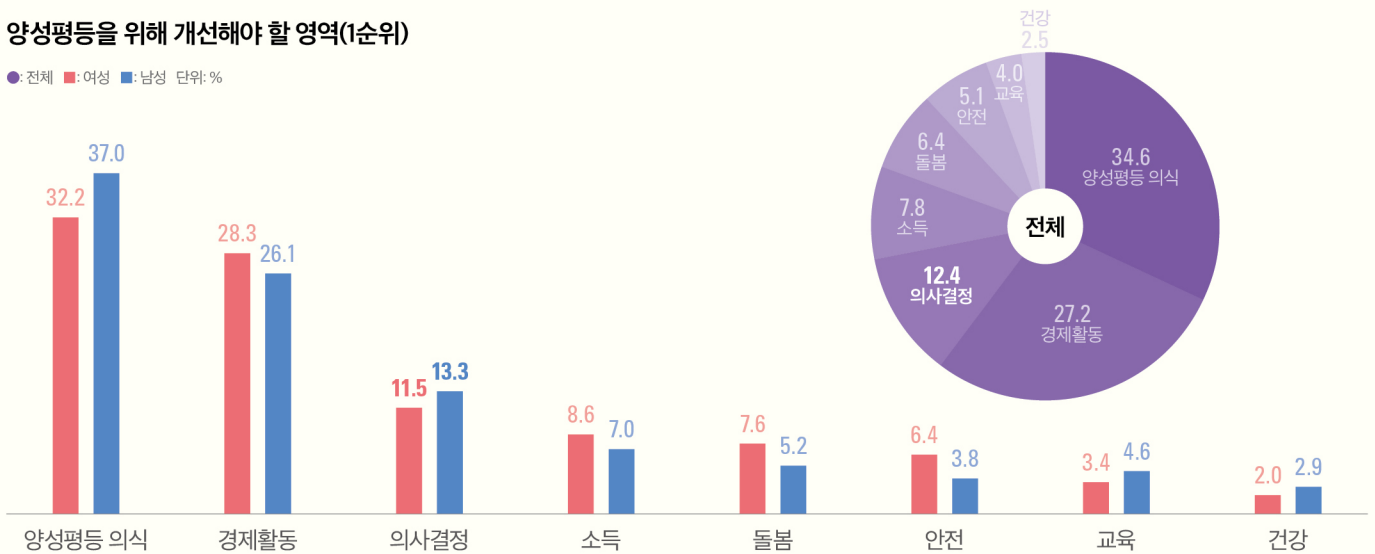


양성평등 개선 영역, 의식 34.6% > 경제 27.2% > 의사결정 12.4%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을 위해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양성평등 의식'(34.6%)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경제활동(27.2%), 의사결정(12.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양성평등 의식'을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응답한 비율이 37.0%로 여성(32.2%)보다 높았으며, 의사결정 영역 역시 남성(13.3%)이 여성(11.5%)보다 높다. 반면 여성은 경제활동(28.3%)과 소득(8.6%), 돌봄(7.6%) 영역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양성평등을 위해 개선해야 할 영역(1순위)

● 전체 ■ 여성 ■ 남성 단위: %



· 전체 n=1,500, 여성 n=746, 남성 n=754

· 출처: 류유선, 오윤희, 김은하(2025),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대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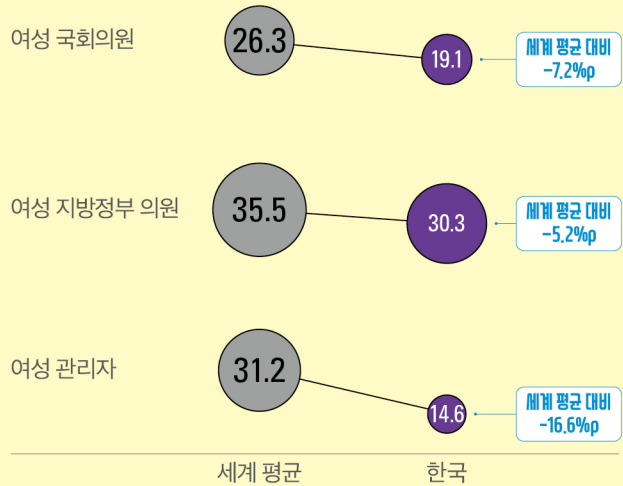
여성임파워먼트지수(WEI)로 살펴본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여성은 의사결정 테이블에 얼마나 앉아 있을까?

UN Women와 UNDP가 발표한 여성임파워먼트지수(WEI)는 여성의 삶에서 선택과 권한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복합지수다. WEI는 여성의 삶을 5개 영역(건강, 교육, 노동·금융 참여, 의사결정 참여,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10개 지표로 측정한다. 의사결정 참여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여성 지방의회 의원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통해 평가된다. 세계 평균을 보면 2023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26.3%, 지방정부 의원 35.5%, 관리자 비율 31.2%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각각 19.1%, 30.3%, 14.6%로 모든 지표에서 세계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가장 큰 격차(세계 평균 대비 -16.6%p)를 보였다.

UN 여성임파워먼트지수(WEI): 의사결정 참여 지표(2023)

단위: %



2026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세계여성의날 #GivetoGain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대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3월 6일 행사를 진행했다. 대전연구원 구성원, 방문객들과 함께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을 화두로 "남자는 가장이어야 한다", "남자는 리더여야 한다", "남자는 젠트해야 한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해 공감 스티커를 붙이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별' 고정관념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제약하며, 성평등은 고정관념으로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를 해방하는 과정임을 이야기 나누고 빵과 장미꽃*을 전달하며 세계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빵'은 남성과 비교해 낮은 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생존권,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영화패 '누에'가 1985년 제작한 영화 '시발(Sibal)' 상영회가 있었다. 대학 내 최초의 여성 영화로 꼽히는 이 작품은 직장을 가진 주부가 겪는 사회적 불평등을 날카롭게 묘사한다. 영화의 제목인 '시발'은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저항의 외침인 동시에, 새로운 변혁을 시도하는 '첫발'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시의 용기 있는 시도들이 모여 오늘날 여성 문제에 관한 수많은 논의를 가능케 했음을 환기하며, 참석자들은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연대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